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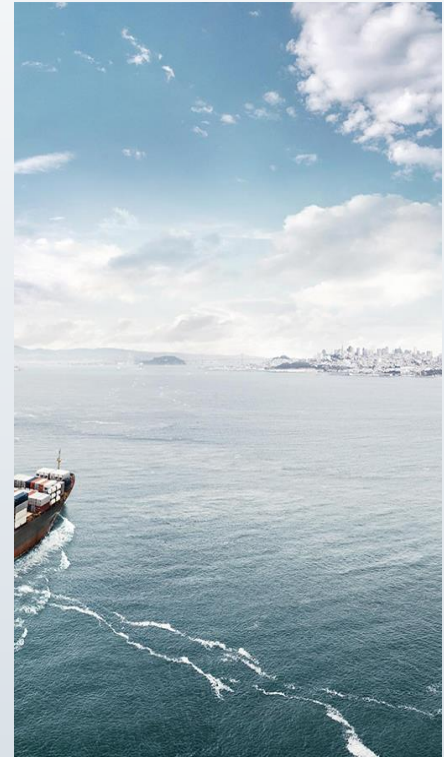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165

Updated September 5, 2017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4
Bulk Carrier	9
- BC Sales Report	
Tankers	13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Useful Information	22
Contact Information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MARKET OVERVIEW

1. 신조선 시장동향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318,000 DWT 급 VLCC 5 척을 발주했다. 양사는 4 일 서울 연지동 현대상선 본사에서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VLCC 5 척+5 척(옵션)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은 지난 4 월 7 일 양사가 체결한 동일 내용의 건조의향서(LOI)를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31 일 현대상선 이사회에서 신규시설투자금 4700 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VLCC 5 척에 대한 건조계약금액은 척당 8,377 만 달러, 총 약 4 억 2,000 만달러(약 4700 억)이며, 신조선박프로그램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계획이다. 옵션 5 척을 행사할 경우 최대 10 척까지 가능하다. 현재 VLCC 신조선가는 2003 년 이후 역대 최저가 수준이며, 현대상선은 이를 감안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발주 시기라고 판단해, 건조계약을 추진했다. 건조된 선박은 2019 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 받을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소브콤플로트 (SOVCOMFLOT, SCF GROUP)로부터 42,000DWT ICE CLASSED 셔틀탱커선을 수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삼성중공업은 동선주에게 이미 3 척의 자매선을 인도한바 있고, 이 자매선들의 계약선가는 2014 년 당시 1 억 4,700 만 달러였다.

올 들어 캄사르막스 발주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중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조선업체도 잇달아 수주행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니센카이운(NISSEN KAIUN)은 최근 옵션 포함 최대 10 척에 달하는 8 만 5,000DWT 급 벌크선을 츠네이시조선과 이마바리조선에 분산 발주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선박가격은 척당 2,700~2,800 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니센카이운은 선박가격이 낮은 시점에서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기적인 발주에 나서는 기업 중 하나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상황이 선단확대를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자국 금융권과 상사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선박 발주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2. 벌크선 시장동향

중고선 거래량은 상당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9 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선박들이 중고선 시장으로 쏟아져나오고 있어 더 많은 성약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 MARKET OVERVIEW

이번주 케이프 사이즈 부문에서 3 척의 거래 소식이 있었고 이중 2 척은 H-LINE 에서 매입한 것이다. H-LINE 이 JP 모건으로부터 2,975 만 달러에 매입 한 것으로 알려진 "TRUE FRONTIER" (179,294 DWT, BLT 2010 HHI)는, 올해 2 월에 2,075 만 달러에 매각된 한진해운 선단의 "N FOS" 이다. H-LINE 이 매입한 다른 한 척은 창명해운의 C. DISCOVERY(179,185 DWT, BLT 2010 HHI)로 "TRUE FRONTIER" (179,294 DWT, BLT 2010 HHI)와 자매선으로 선가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의 대형선사 Oldendorff 가 계속해서 벌크선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몇주간 벌써 핸디사이즈 2 척과 울트라막스 1 척을 매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포스트 파나막스 "BOAVISTA" (93,077 dwt, blt 2010, TAIZHOU KOUAN)를 1,400 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3. 탱커선 시장동향

탱커선 시장은 여전히 조용한 한주를 보내며 성약소식이 많지 않다.

11 곳이 넘는 바이어가 검선하고 많은 이들의 주목은 받고 있던 VLCC "NICHINORI" (298,414 DWT, BLT 2002, UNIVERSAL)이 결국 2,100 만 달러에 장금상선으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가는 올해 12 월에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어 동형선 마켓예상가격보다 약간 낮게 거래되었다.

GENER8 사의 아프라막스 "GENER8 PERICLES" (105,674 DWT, BUILT 2003, SUMITOMO)이 그리스 바이어에게 1,03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이 선박은 지난 7 월에 극동바이어와 1,170 만 달러에 매각되었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이번에 재매각 되었다. 2 달간 선가가 거의 100 만달러 정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 해체선 시장동향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인도아대륙 해체선 시장은 갑자기 거래가 멈춘 듯 하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폭우로 주거용 건물이 붕괴되는 등의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무슬림의 추석과도 같은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 9 월 1 일-9 월 4 일) 휴일의 영향도 있는듯 하다.

I . MARKET OVERVIEW

해체선 시장은 최근 활발한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해체선가는 1dt 당 400 달러 선을 빠르게 돌파했고 운이 좋은 상당수의 선주들은 좋은 가격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벌크선/컨테이너선 용선료 시황이 나쁘지 않아 노후선의 폐선시기를 늦추고 있어 높은 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4/4 분기에는 입거검사를 앞두고 있는 수 많은 노후선들이 해체선 시장으로 흘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높은 가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지 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상당히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는 탱커선과 오프쇼어 부문에서는 해체선 공급량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인도/방글라데시에서는 고열작업(hot work) 규정이 엄격해진 상황이고, 파키스탄은 여전히 탱커선의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라 수요 증가는 크지 않다.

II . ISSUE & TREND

1. 현대상선 "대형 선박 늘리고 용선료 줄이고"...선대 경쟁력 강화

현대상선이 선대 확장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을 위해 선복량을 늘려야하는 만큼 선박확보와 고용선료 해결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4 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의 선대는 7 월 말 기준 컨테이너 58 척(사선 13 척, 용선 45 척), 벌크 43 척(사선 6 척, 용선 37 척) 등 총 101 척으로 이중 1 만 TEU(1TEU=20 피트 컨테이너 1 개)급 이상 대형선박은 16 척(사선 5 척, 용선 11 척)이다.

현대상선이 최근 한진중공업으로부터 1 만 1000TEU 급 컨테이너선 2 척(약 1820 억원)의 인수를 결정하면서 대형선박은 18 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선박은 고효율 친환경 선박으로 내년 5 월 인수 예정이다. 인수 후에는 남미동안 서비스(NE2)에 투입된다.

현재 현대상선은 중동, 미주 등 주력 노선에 선대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동노선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중동노선을 기존 1 개에서 2 개로 이원화해 확대 개편했다. 아시아~중동항로에서 현대상선의 시장점유율은 1 위 수준이다.

현대상선은 내년 1 만 3000TEU 급 초대형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용선으로 확보한 1 만 TEU 급 이상 선박 6 척 중 5 척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미주동안 노선에 투입했지만 올해 선박을 빼고 중동노선에 투입했다. 나머지 1 척은 남미서안 노선에서 운항 중이다.

현대상선은 대형선박 16 척을 중동노선, 미주서안 등에 투입하고 일부는 대선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미주동안의 경우 2M(머스크라인, MSC)의 원가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2M 선박을 쓰고 있다"며 "미주서안은 현대상선 선박만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기로 했던 30 만 t 급 초대형유조선(VLCC)에 대한 신조 선박투자도 확정했다. VLCC 5 척(+5 척 옵션)에 대한 신규시설투자금 약 4700 억원을 확정지었고 신조 선박프로그램(선박펀드)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계획이다.

II . ISSUE & TREND

현대상선이 선박확보에 나선 것은 선복량 확대를 위한 것이다. 해운업계는 글로벌 상위 7 대선사(머스크라인, MSC, 코스코 등)의 규모가 최소 140 만 TEU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대상선 규모 역시 100 만 TEU 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박 확보는 지금이 적기다. 상황이 좋아질 때 보다는 선가가 내려간 현 시점에 대형 선박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확보한 컨테이너선과 VLCC 모두 시장가 보다 낮게 확보했다고 현대상선은 설명한다. 현대상선 측은 "현재 신조선가는 2003 년 이후 역대 최저가 수준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주 최적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상선은 용선료가 고가인 선박을 반선하며 운영비 절감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고용선료는 현대상선 경영악화의 주범이었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 월부터 내년 1 월까지 고용선 선박 10 척이 반선된다.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반선되면 현대상선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선료 틀에 갇히면 상당히 빠져나오기 힘들다"며 "얼만큼 경쟁력 있는 선박을 보유하느냐가 선사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용선료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현대상선은 고용선 선박 반선을 통해 절감한 비용을 신조 발주 등 선박확보에 투입할 방침이다. 선박확보, 특히 대형선박은 선사의 규모 대형화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대상선의 16 척은 타 선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난 4 월 기준 1 만 TEU 급 이상 선박 보유량은 머스크라인 77 척, MSC 83 척, CMA-CGM 이 60 척, 코스코 70 척(OOCL 포함), 하팍로이드 36 척, 에버그린 29 척(양밍 인수 시), 일본 3 사(Ocean Network Express) 25 척이다. 선복량 역시 약 34 만 TEU 로 세계 15 위(점유율 1.6%)에 그치고 있다.

현대상선은 2020 년 환경규제에 맞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또 2020 년 4 월 2M 과의 협력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2020 년을 신조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정부의 '신조지원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선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5 월 글로벌 경영 컨설팅회사 AT 커니(AT Kearney)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 년간 9 조 9000 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현대상선은 100 만 TEU 선사로 크기 위해서는 대형선박 40 척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5 조 5000 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I . ISSUE & TREND

2. 컨테이너 계선량, 40 만 TEU 대 붕괴.. 37 만 8,000TEU

알파라이너가 정리한 21 일 시점의 세계 컨테이너선 계선 규모는 151 척, 37 만 8000TEU 를 기록했다. 2 주일 전에 비해 10 만 TEU 가까이 감소해 40 만 TEU 대가 무너졌다. 계선 규모가 이정도 축소된 것은 2 년 만이다. 남북항로를 포함한 주요 컨테이너 항로의 물동량이 호조로 선복 거래가 증가한 것이 기여했다.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전체 선복량에서 차지하는 21 일 시점의 계선 선복 비율은 TEU 기준으로는 1.8%. 2 주일 전에 비해 0.5 포인트나 저하했다.

계선 척수를 선형별로 보면 500 - 999TEU 급 49 척, 1000 - 1999TEU 급 37 척, 2000 - 2999TEU 급 16 척, 3000 - 5099TEU 급 40 척, 5100 - 7499TEU 급 3 척, 7500 - 1999TEU 급 6 척, 1 만 2000TEU 급 이상 0 척. 제자리였던 2000 - 2999TEU 급을 제외하고 기타 선형은 모두 감소했다. 유럽 - 남미동안항로 컨소시엄 재편에 따라 리퍼 플러그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 대형선의 거래가 있음과 함께 아프리카 서안항로 개편으로 구 파나막스형도 기용돼 계선 축소가 계속된다.

현재 이 만큼 계선 규모가 축소됐으나 중국 국경철 연휴 이후의 비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근동항로는 이미 소식률이 75% 정도까지 하락하는 등 어렵다. 앞으로 비수기에 돌입해 단숨에 상황이 하락하면 선복 감축으로 계선 규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 금속 원자재값 고공행진...광산업계에 별 들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금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구리·아연·알루미늄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아연 3 개월물 가격은 t 당 3180 달러에 육박해 2007 년 10 월 이후 약 10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9 월물 가격은 얼마 전 파운드당 3.0025 달러를 기록하면서 3 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구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구리의 순매수 포지션이

II . ISSUE & TREND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가격도 8월 들어 3년래 최고치에 도달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5월 말 이후 35% 올랐다.

금속 원자재값의 급등세는 몇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탄력을 받았다. 우선 미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강세가 예상됐던 달러화는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12월 20일 103.28로 최고치를 찍은 후로 하강곡선을 그려 현재 93 수준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표시 자산인 원자재 가격이 타국 통화 대비 떨어져 원자재 수입국들의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원자재 수요가 큰 중국을 비롯해 미국·유로존·아시아 등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원자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찰한 주요 45개국이 올해 성장 궤도에 올랐고 이들 국가 중 33개국은 지난해부터 성장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3.5%, 내년 3.6%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침체를 면치 못했던 유로존 경제가 마침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로존 19개국의 성장률은 올해 1분기 미국을 넘어섰으며 2분기에도 같은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견고한 경제를 유지해온 독일이나 네덜란드 외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성장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 CNBC 방송은 '시티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세계 각국이 강한 경제성장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 뉴스는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세가 월가의 호황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I . ISSUE & TREND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도 구리와 니켈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니켈은 전기차 전지를 대량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세계 최대 광물업체 BHP 빌리턴은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순수익이 59억달러(약 6조 7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BHP는 연간 배당금을 177% 늘린 반면 순부채는 전년 대비 38% 줄었다. 앤드루 매켄지 BHP 빌리턴 최고경영자(CEO)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생산량을 7% 확대할 것"이라며 "생산성 개선을 통해 강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2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리오티토, 영국 광산업체 앵글로아메리칸, 대형 원자재 거래업체인 글렌코어의 순부채 합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44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말보다 50%가량 줄어든 수치다. BHP와 리오티토는 개선된 실적과 향후 수요 등을 감안해 칠레, 몽고 등에 구리 광산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금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와 니켈·구리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칠레 등의 통화가치를 견인하고 있다. 광산주가 떠오르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금속·광업지수도 지난 5월 말 이후 13% 상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속 원자재 가격이 투기 세력의 개입 여파로 급등한 것이며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수요에 비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형 광산업체들이 대규모 배당과 부채 축소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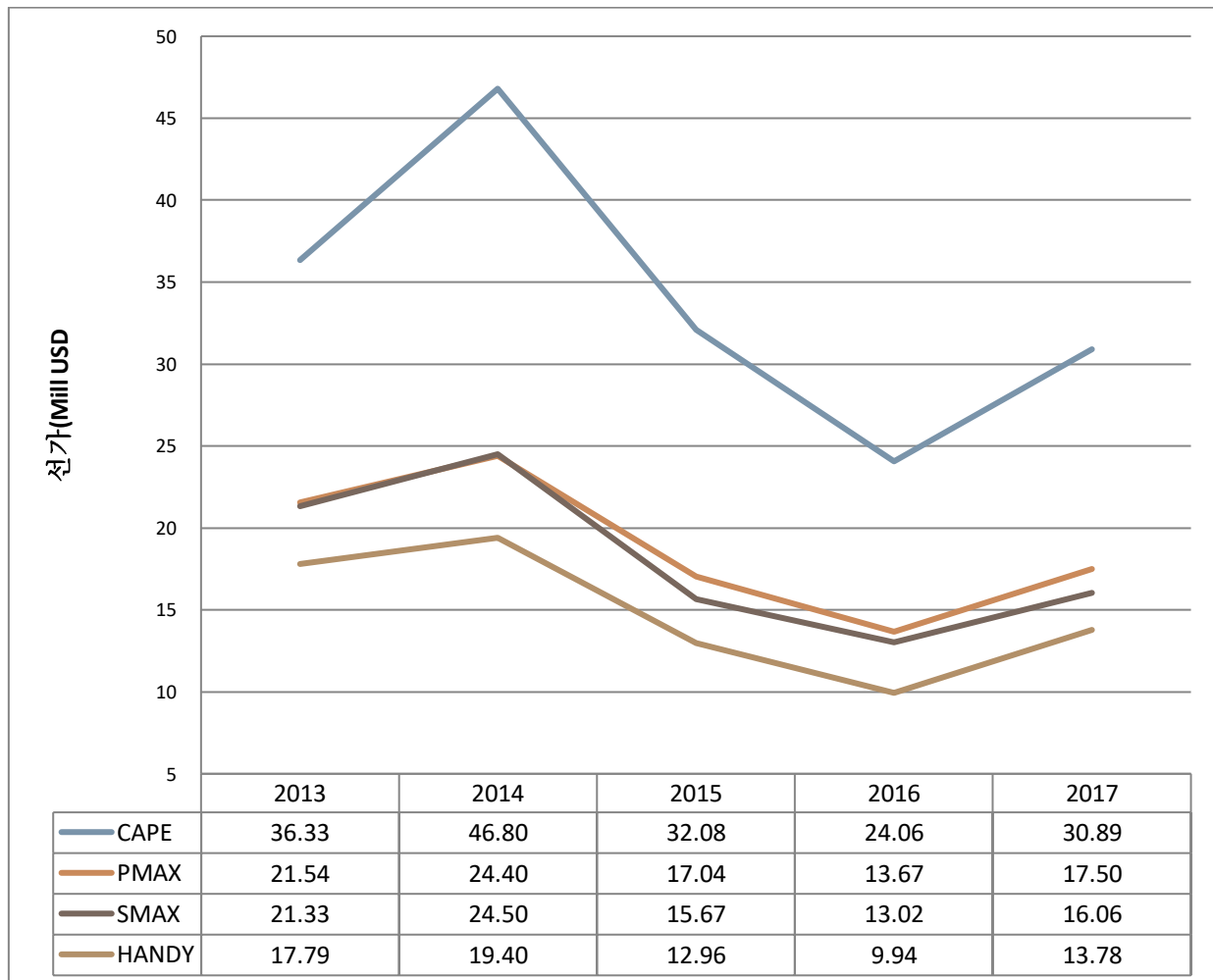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pesize 180K	36.33	46.80	32.08	24.06	30.89
	6.21%	28.81%	-31.45%	-24.99%	28.37%
Panamax 76K	21.54	24.40	17.04	13.67	17.50
	-2.45%	13.27%	-30.16%	-19.80%	28.05%
Supramax 56K	21.33	24.50	15.67	13.02	16.06
	-4.30%	14.84%	-36.04%	-16.91%	23.31%
Handysize 32K	17.79	19.40	12.96	9.94	13.78
	1.91%	9.04%	-33.20%	-23.32%	38.64%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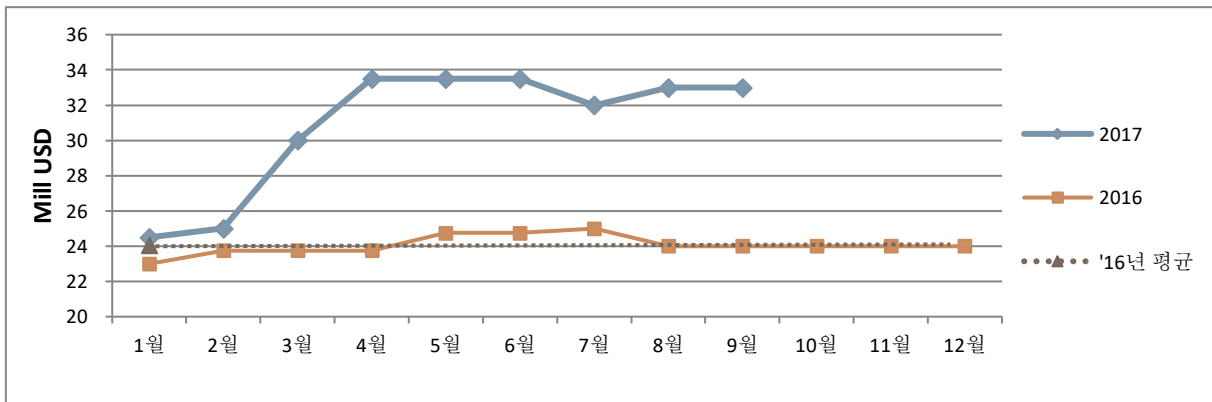




III.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7	CAPE 180k	선가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3.50	33.00	33.00	30.9
		전월대비	2.1%	2.0%	20.0%	11.7%	0.0%	0.0%	0.0%	3.1%	0.0%	-
		전년대비	6.5%	5.3%	26.3%	41.1%	35.4%	35.4%	34.0%	37.5%	37.5%	28.4%
	PMAX 76k	선가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8.00	18.50	18.50	17.5
		전월대비	3.6%	6.9%	12.9%	5.7%	0.0%	-2.7%	0.0%	2.8%	0.0%	-
		전년대비	11.5%	19.2%	34.6%	42.3%	32.1%	28.6%	28.6%	32.1%	32.1%	28.0%
	SMAX 56k	선가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00	16.25	16.25	16.1
		전월대비	3.6%	3.4%	6.7%	6.3%	0.0%	-2.9%	-3.0%	1.6%	0.0%	-
		전년대비	11.5%	25.0%	33.3%	41.7%	30.8%	30.8%	23.1%	22.6%	20.4%	23.3%
HANDY 32k	선가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3.8	
	전월대비	8.3%	3.8%	0.0%	3.7%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36.8%	42.1%	42.1%	47.4%	55.6%	55.6%	51.4%	47.4%	33.3%	38.6%	
2016	CAPE	23.00	23.75	23.75	23.75	24.75	24.75	25.00	24.00	24.00	24.1	
	PMAX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14.00	14.00	14.00	13.7	
	SMAX	13.00	12.00	12.00	12.00	13.00	13.00	13.00	13.25	13.50	13.0	
	HANDY	9.50	9.50	9.50	9.50	9.00	9.00	9.25	9.50	10.50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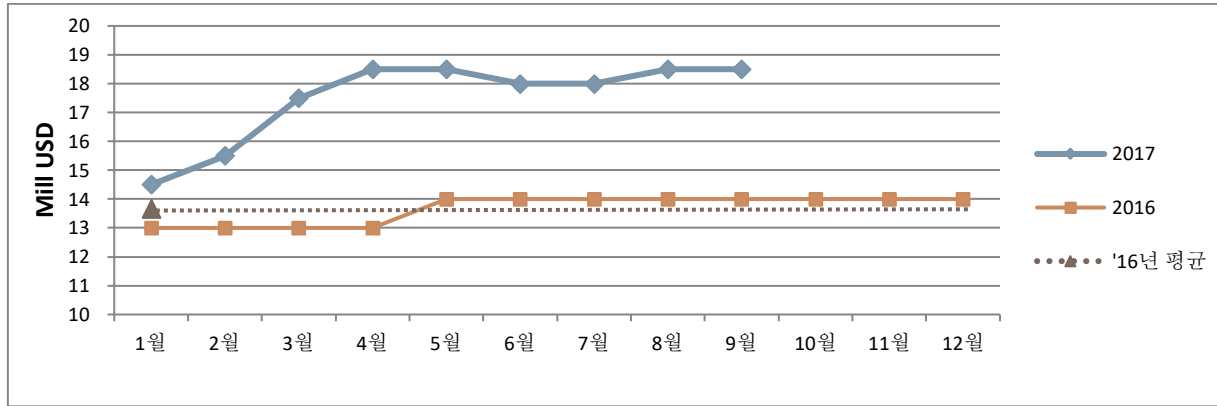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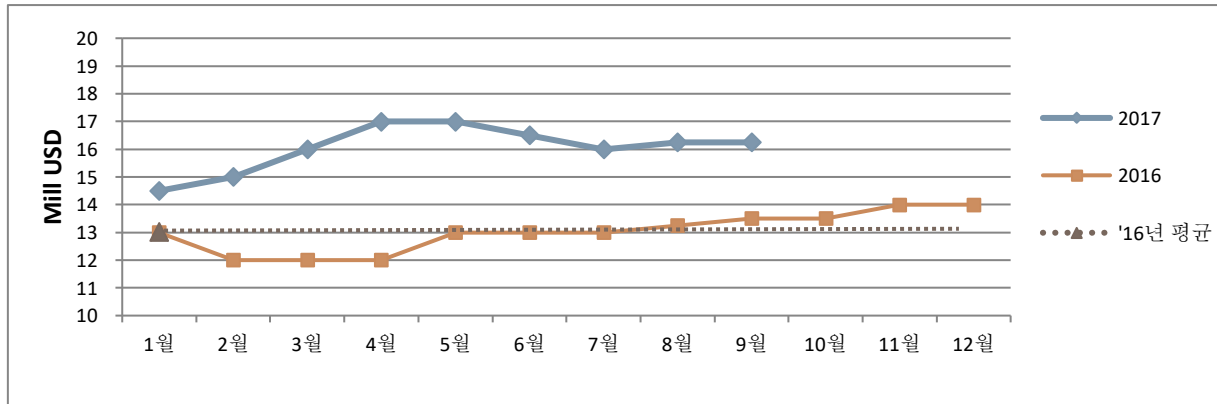


I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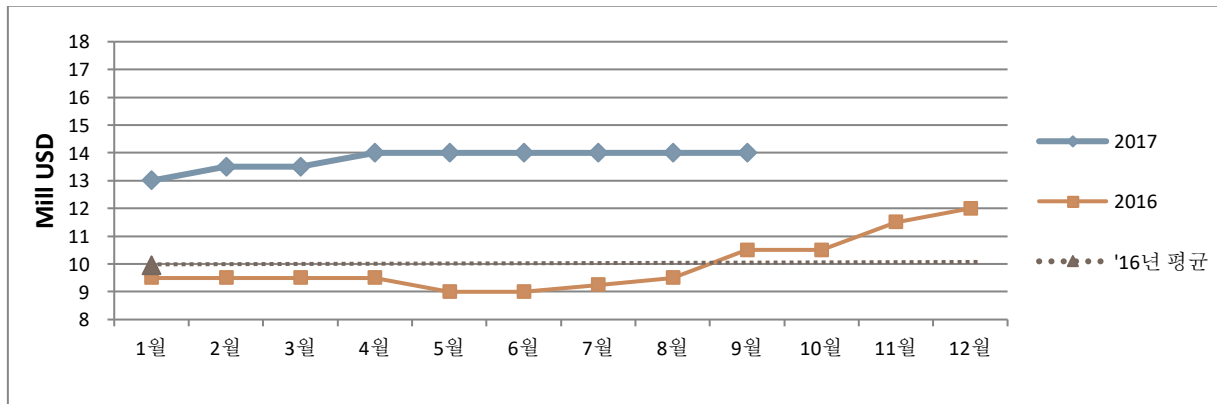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I.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TRUE FRONTIER	179,000	2010	KOREA	B&W		29.75	Korean buyer
BC	NPS CENTURY	172,036	2000	KOREA	B&W		12	USA buyer
BC	BOAVISTA	93,077	2010	CHINA	B&W		14	German buyer (Oldendorff Carriers), bank sale
BC	UNICORN OCEAN	78,888	2008	JAPAN	B&W		15	Greek buyer (Petrofin Ship), BBHP for 5 year at 5100 pd
BC	HARIS ATHINA	74,786	2001	CHINA	B&W		7.5	Chinese buyer
BC	STAR JING	63,652	2013	CHINA	B&W	C 4x30t	14.75	Singapore buyer (Wilmar)
BC	STAR VIVIAN	63,652	2013	CHINA	B&W	C 4x30t	14.75	
BC	POSEIDON SW	56,000	2008	JAPAN	B&W	C 4x30t	13.1	Undisclosed buyer
BC	OCEAN PROSPERITY	51,500	2010	JAPAN	MITSU	C 4x30t	12.7	Greek buyer
BC	LUCKY BEST	45,675	1996	JAPAN	B&W	C 4x30t	3.7	Chinese buyer
BC	VYRITSA	35,000	2010	CHINA	B&W	C 4x30t	7.45	Undisclosed buyer
BC	KOVDOR	35,000	2010	CHINA	B&W	C 4x30t	7.45	
BC	ARISTO RIVER	33,532	2005	JAPAN	MITSU	C 4x30t	7.7	European buyer
BC	GLORY MARUGAME	28,343	2008	JAPAN	B&W	C 4x30.5t	7.9	Undisclosed buyer
BC	NICOLINA	24,159	1997	JAPAN	B&W	C 3x30t	2.8	Middle Eastern buyer
BC	KAVAFIS	8,184	2007	CHINA	DAIHA	X	2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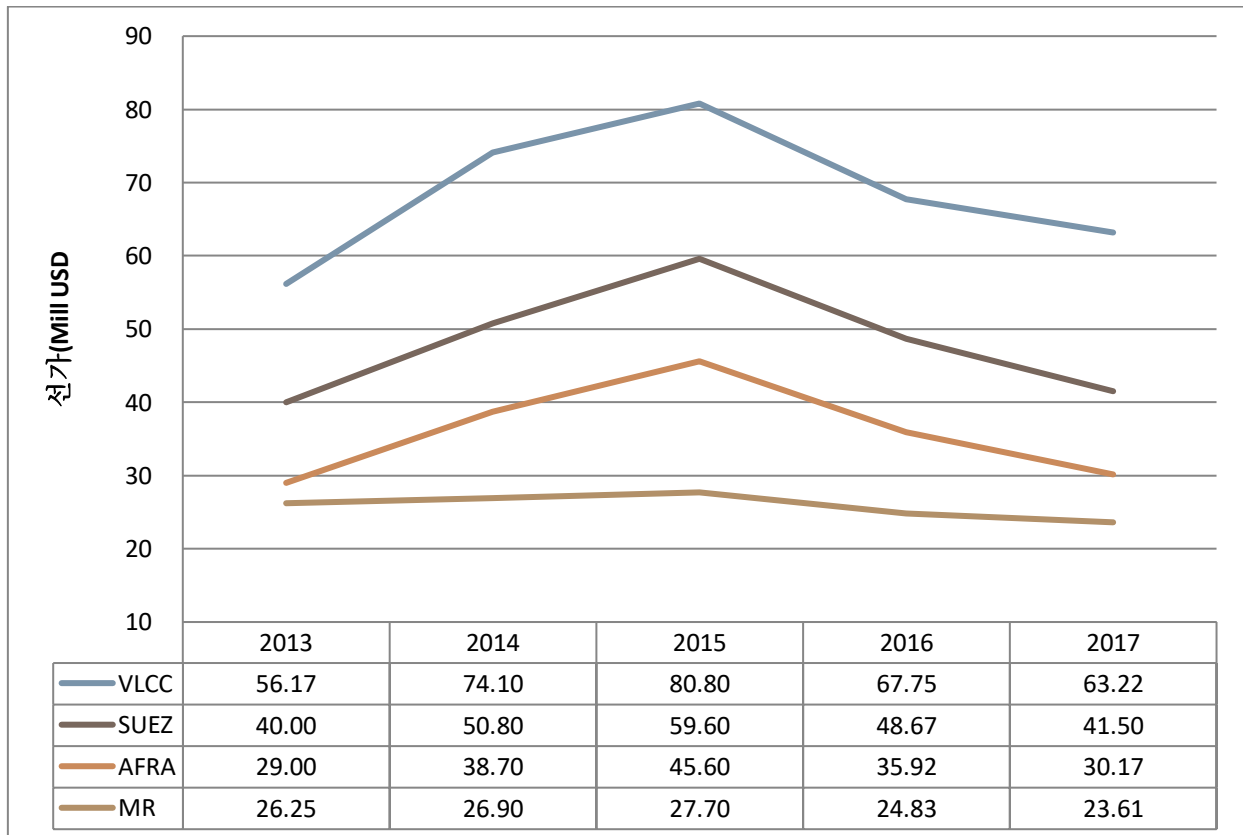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VLCC 310K	56.17	74.10	80.80	67.75	63.22
	-10%	32%	9%	-16%	-6.7%
Suezmax 160K	40.00	50.80	59.60	48.67	41.50
	-10%	27%	17%	-18%	-14.7%
Aframax 105K	29.00	38.70	45.60	35.92	30.17
	-5%	33%	18%	-21%	-16.0%
MR 47K	26.25	26.90	27.70	24.83	23.61
	5%	2%	3%	-10.3%	-4.9%
Chemical Tanker IMO II 13K	11.94	13.00	12.60	13.92	12.47
	13%	9%	-3%	10.4%	-10.4%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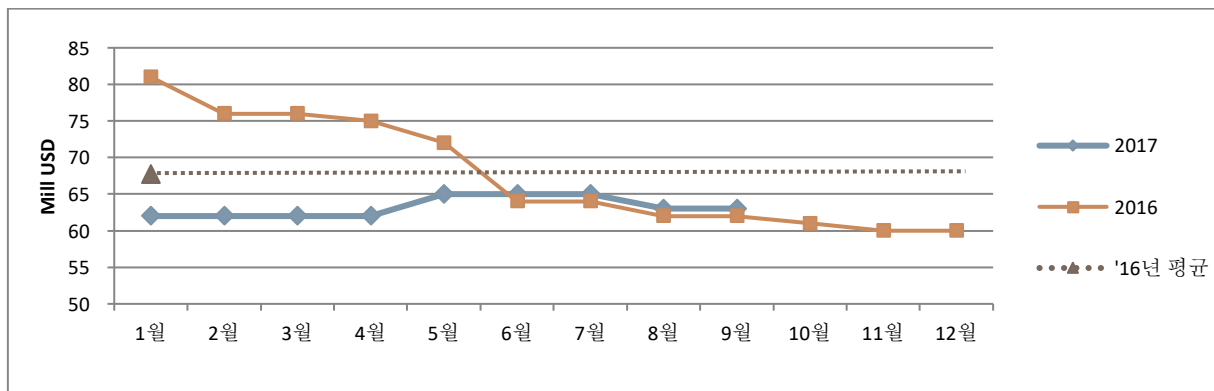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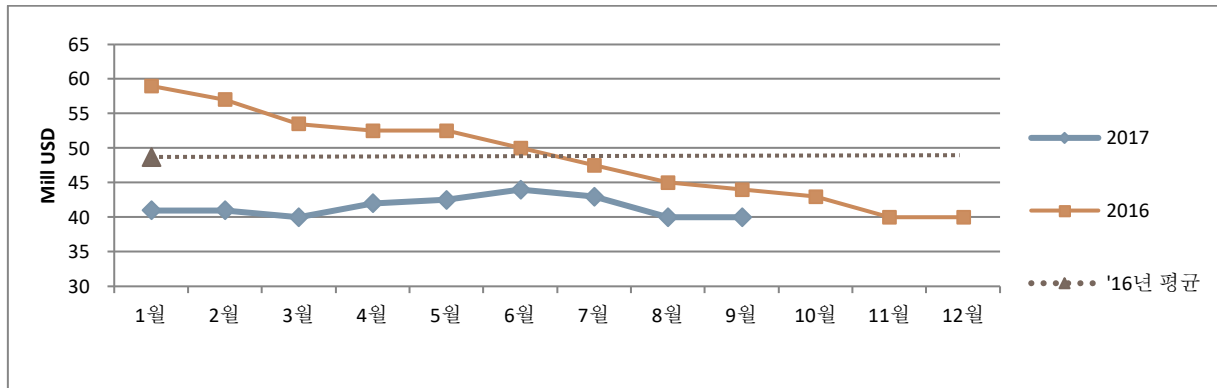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7	VLCC 310K	선가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5.00	63.00	63.00	63.2
		전월대비	3.3%	0.0%	0.0%	0.0%	4.8%	0.0%	0.0%	-3.1%	0.0%	-
		전년대비	23.5%	18.4%	18.4%	17.3%	-9.7%	1.6%	1.6%	1.6%	1.6%	-6.7%
	SUEZ 160K	선가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4.00	40.00	40.00	41.5
		전월대비	2.5%	0.0%	-2.4%	5.0%	1.2%	3.5%	0.0%	-7.0%	0.0%	-
		전년대비	30.5%	28.1%	25.2%	20.0%	19.0%	12.0%	-7.4%	11.1%	-9.1%	14.7%
	AFRA 105K	선가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2
		전월대비	3.4%	0.0%	-5.0%	5.3%	3.3%	0.0%	0.0%	-3.2%	0.0%	-
		전년대비	33.3%	25.0%	28.8%	25.0%	20.5%	16.2%	11.4%	-9.1%	-7.7%	16.0%
	MR 47K	선가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5.00	23.50	23.50	23.6
		전월대비	2.3%	0.0%	0.0%	6.7%	4.2%	0.0%	0.0%	-2.1%	0.0%	-
		전년대비	25.0%	18.2%	18.2%	12.7%	-5.7%	4.2%	8.7%	2.2%	2.2%	-4.9%
CHEM IMO2 13K	선가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50	12.75	12.25	12.5	
	전월대비	-5.8%	-2.0%	6.3%	-2.0%	2.0%	-2.0%	0.0%	2.0%	-3.9%	-	
	전년대비	12.5%	15.8%	10.5%	12.3%	10.5%	10.7%	-9.1%	-8.9%	12.5%	10.4%	
2016	VLCC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4.00	62.00	62.00	67.8	
	SUEZ	59.00	57.00	53.50	52.50	52.50	50.00	47.50	45.00	44.00	48.7	
	AFRA	45.00	40.00	40.00	40.00	39.00	37.00	35.00	33.00	32.50	35.9	
	MR	30.00	27.50	27.50	27.50	26.50	24.00	23.00	23.00	23.00	24.8	
	CHEM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13.75	14.00	14.00	67.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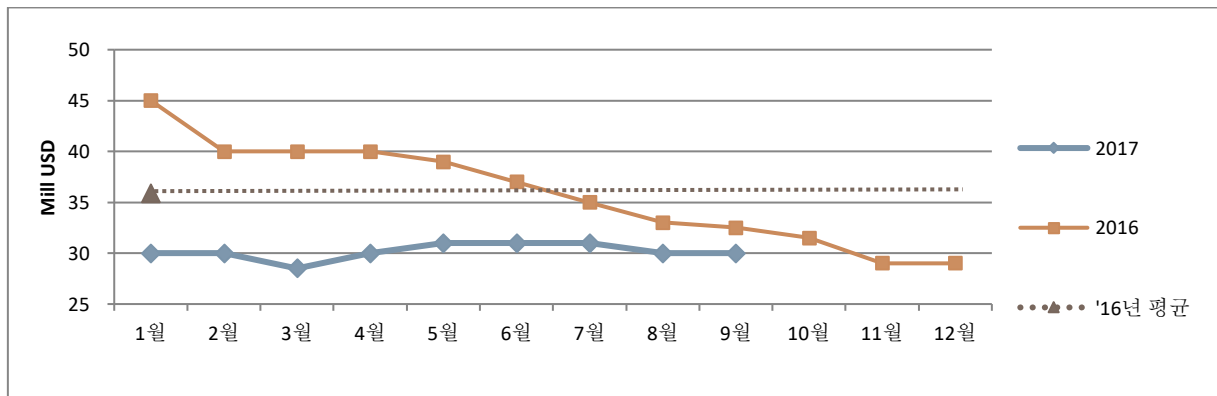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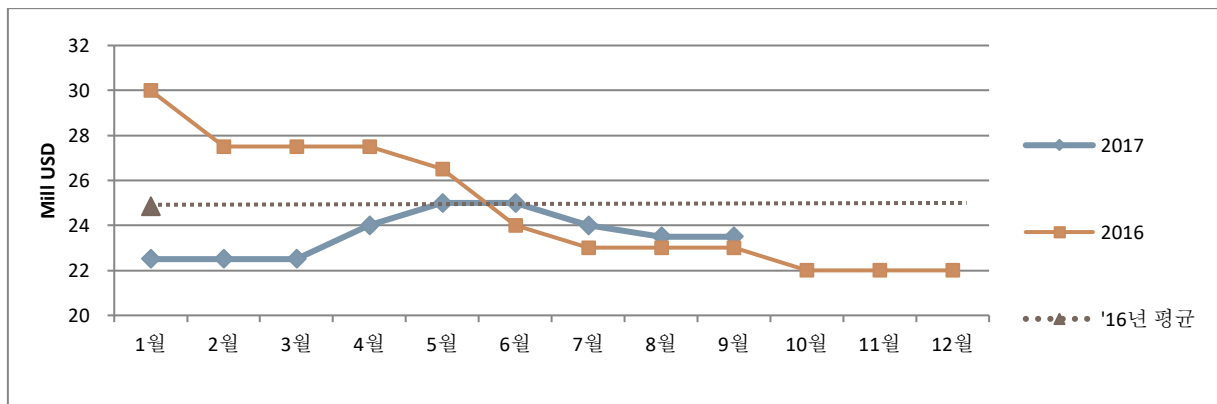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47K



IV.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ICHINORI	298,414	2002	GREECE	B&W		21.5-22	Far Estern buyer
TANKER	GENER8 PERICLES	105,674	2003	JAPAN	SULZ		10.3	Greek buyer
TANKER	TANJA JACOB	73,004	2003	KOREA	B&W		10	Greek buyer
TANKER	JILL JACOB	72,908	2003	KOREA	B&W		10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CHINDWIN STAR	20350	1996	GERMANY	MITSU	1188	TEU	2.8	Singaporean buyer(OEL)
CONT	CONMAR ISLAND	10334	2008	GERMANY	MAK	905	TEU	-	German buyer (Jens & Waller Reederei)
CONT	ATLANTIC ALTAIR	66937	2005	KOREA	SULZ	5075	TEU	8.7	Greek buyer (Cyprus Sea Lines)
MPP	CELEBRATION (TD, heavy lifter)	10325	2002	NETHERLAND	MAK	668	TEU	-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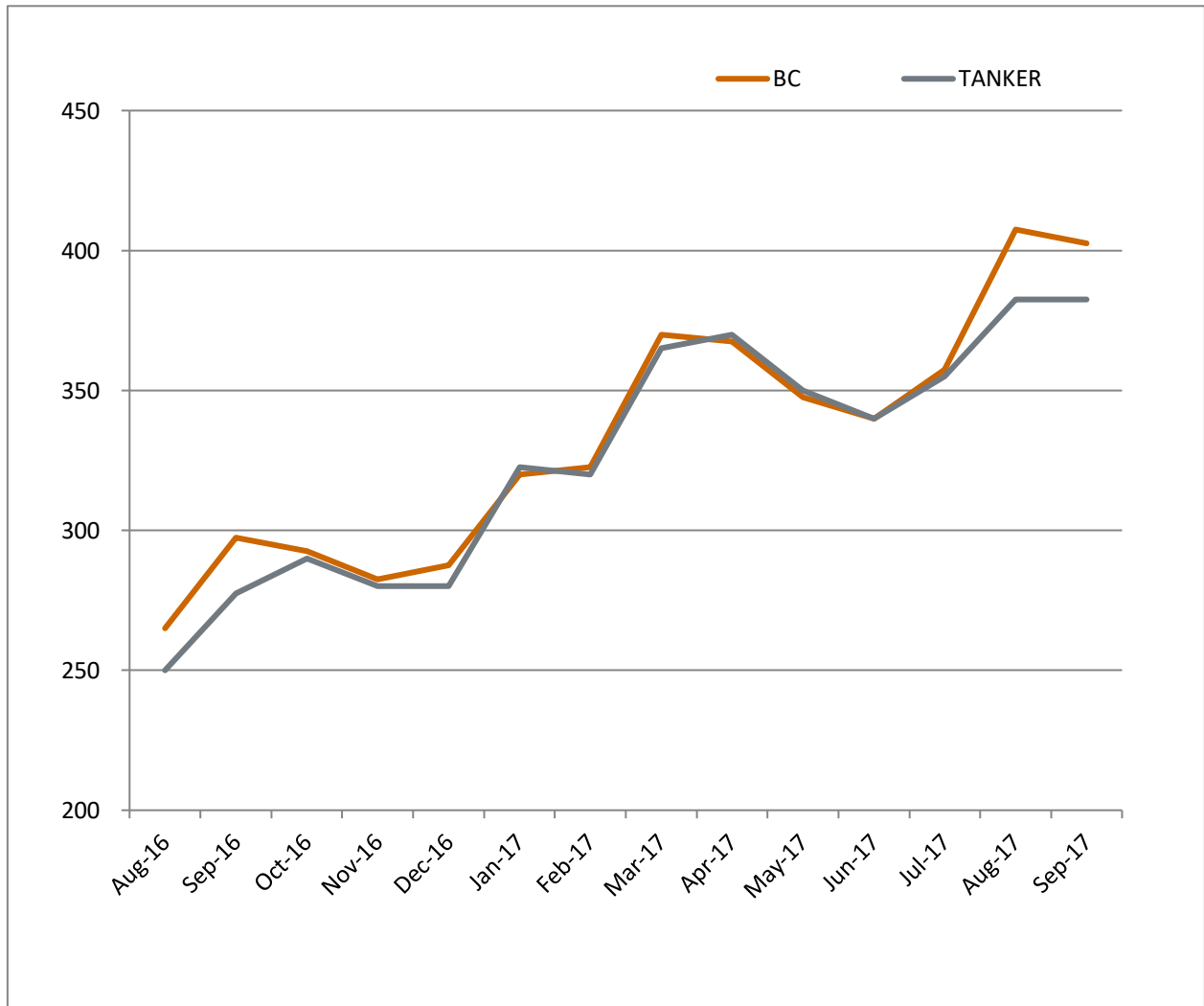


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5 평균		2016 평균		2017 평균		2016 년 9 월	2017 년 9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41.04	-28.2%	265.63	-22.1%	354.17	33.3%	277.50	382.50	0.0%	37.8%
BC	336.54	-28.2%	267.71	-20.5%	359.44	34.3%	297.50	402.50	-1.2%	35.3%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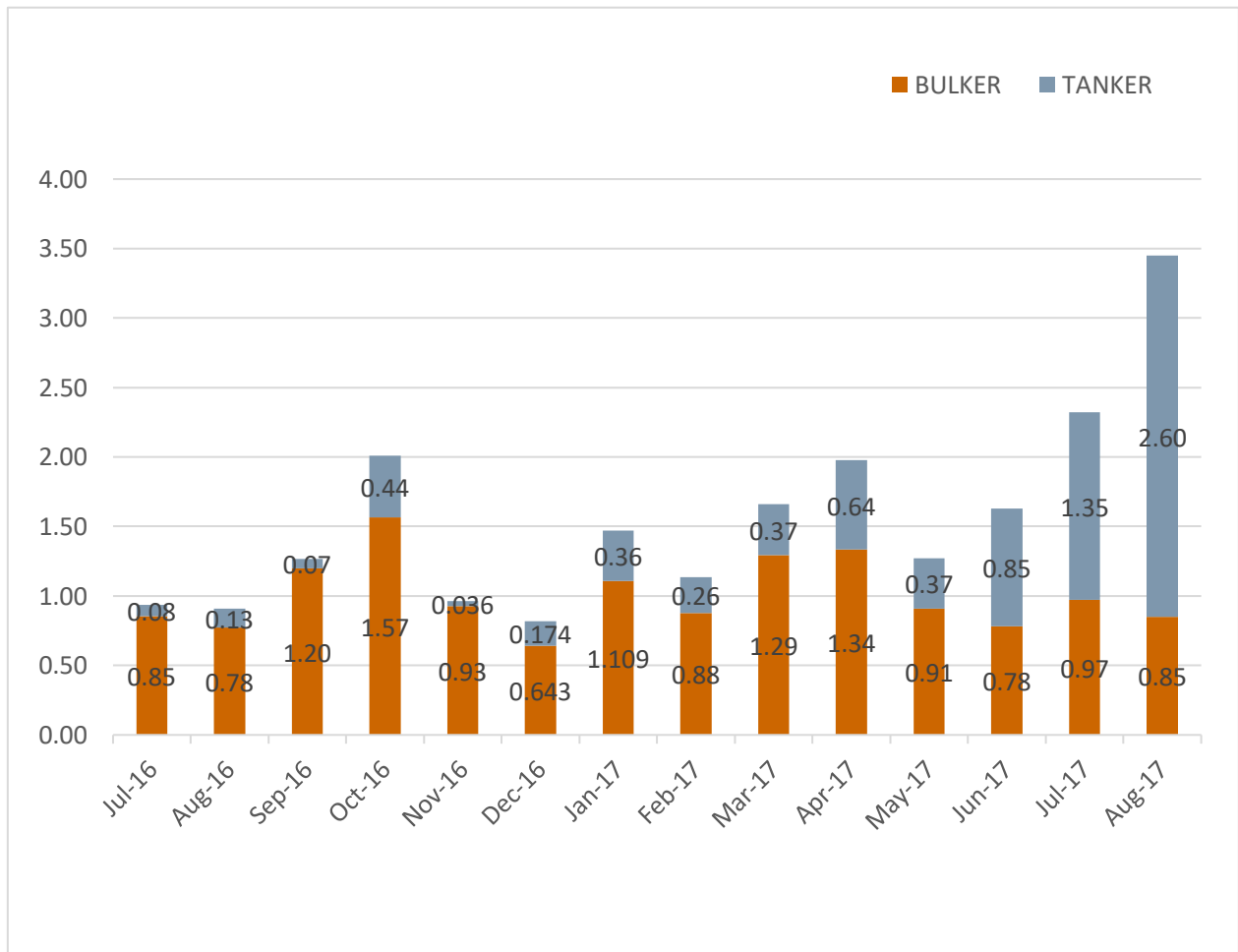


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6 년		2017 년 누적			2016 년 8 월		2017 년 8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86	46	6.79	237.3%	67	145.7%	0.13	4	2.60	1,868.2%	21	425.0%
BC	27.34	428	8.13	29.7%	212	49.5%	0.78	17	0.85	9.8%	28	64.7%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V .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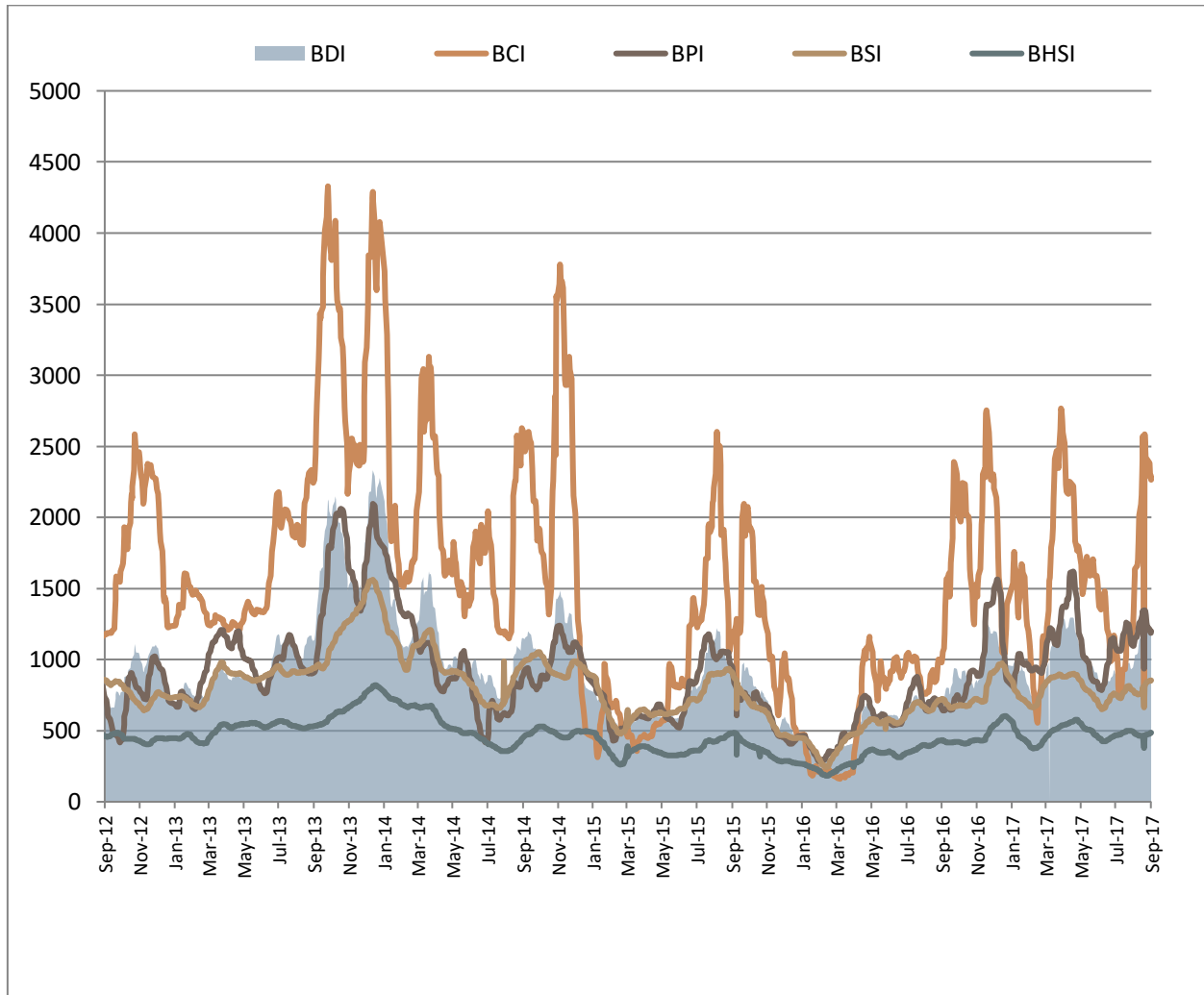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REMARKS
TANK ER	EAGLE BOSTON	99,343	16727	1996	KOREA	B&W	389	BANGLADESH
TANK ER	ALORS	45,999	10766	1991	SPAIN	B&W	-	AS IS Fujairah



VI.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7-09-01	2017-08-25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183	1209	▼-26.00	2337	290
BCI	2264	2406	▼-142.00	4329	161
BPI	1198	1235	▼-37.00	2096	282
BSI	856	845	▲11.00	1562	243
BHSI	486	474	▲12.00	821	183





VI.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17.50	▲1.50	304.50	▲4.00	313.50	▲16.00
IFO180	342.00	▲1.00	336.00	▲4.00	396.50	▲12.00
MGO	488.50	▲8.50	476.50	▲9.50	530.50	▲44.50

❖ 기준일 : 9 월 1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7-09-01	2017-08-25	CHANGE
미국달러	1113.84	1127.30	▼-13.46
일본엔(100)	1012.43	1028.98	▼-16.55
유로	1327.12	1330.33	▼-3.21
중국위안	170.51	169.33	▲1.18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교육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교육 용선업무 심화과정	9.11 (월) ~ 9.22 (금)	서울 종로구 세종빌딩 10 층 (해사문제연구소)	해양수산부가 해운.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선업무 심화과정
컨퍼런스	16TH ANNUAL MARINE MONEY WEEK ASIA	9.19 (화) ~ 9.20 (수)	ST. REGIS SINGAPORE (MARINE MONEY)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박금융 컨퍼런스
포럼	SHIPOWNERS FORUM SINGAPORE 2017	9.25 (월)	JW MARRIOTT HOTEL SINGAPORE (TRADEWINDS)	-중단기 해운시황 전망 -글로벌 경제성장과 해상물동량 변화 -수주잔량 부족에 따른 조선소의 위기
박람회	KORMARINE 2017 (국제 조선/해양 산업전)	10.24 (화) ~ 10.27 (금)	부산 BEXCO (부산광역시 외)	-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 정책, R&D 등 각분야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 -세계 4 대 규모의 조선/해양분야 전문 비즈니스전시회
포럼	제 10 회 한국선박금융포럼 (한국마린머니)	11.1 (수)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MARINE MONEY ASIA)	BUILDING FOR THE FUTURE



VIII. CONTACT INFORMATION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Danny Park (박준섭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 010-5299-1126

snp@stlkorea.com

danny@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Patima J.H. Lee (이지혜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 010-6455-1646

snp@stlkorea.com

patima@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